

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 '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국제협력국장 면담
-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정보공유 등 논의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출입국 심사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등 한·미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등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되어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 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소속의 '이민연락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세관국경보호청과의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 「2008년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직원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이민연락관으로 파견 중

이에,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 자동출입국 분야의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하였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동포의 해외 출입국 및 거주 편의를 높이는 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종철	(02-2110-4010)
	출입국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홍인표	(02-2110-4014)